

안동 서미 2동의 마을구조 및 민가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the village and the Property of Folk Houses on Seomi 2-dong village in An-Dong

정명섭*
Chung, Myung-sup

곽동엽**
Kwak, Dong-yeob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ystem of the architectural order on Seomi 2-dong village in An-Dong. The scope of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12 traditional houses situated on this area. The focus of this study is mainly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of this village, the arrangement of houses related in geographical features of i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nd ground plans on these houses. As results of it, there are mostly Yeo-Kan houses(six spans sized) on Seomi 2-dong village in An-Dong and every house on this domain is in harmony with the systematic order of it.

Keywords : Yeo-Kan Houses, Geographical Features of Houses, Transition of the Village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주택을 연구함에 있어 특히 민가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가에 비해 민가는 해당 지역의 산출재료나 기후 및 지세, 지질 등 자연적인 조건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는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주거특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주택의 지역성이라 하고 그 지역성의 가장 작은 단위로 마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민가의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집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의 전체적인 질서 속에서 각 개별 주택들의 위상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해당 주택이 지닌 지역성의 근원에 대해 보다 정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을 구성원이 혈족으로 이루어진 동성마을일 경우 이러한 민가의 지역성은 보다 뚜렷해진다. 동성마을의 주택들은 대개 강한 협동의식에 기초한 품앗이 형태

로 직접 지어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혈연적 동질성으로 인한 同調性이 작용하여 주택의 형식들은 서로가 서로를 닮아 있기 때문이다. 동성마을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주택의 동질성은 주민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의 독특한 지역성으로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주거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전통주택의 특성을 시간적 지역적으로 분류·분석하여 계통화하는데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주택의 지역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새삼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동성마을 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민가의 평면 및 공간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마을과 단위 주거의 배치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을단위의 연구가 거듭되어 자료가 축적될수록 주거의 지역적 계통화가 더욱 정확해 질 수 있으며 또한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의 결과물은 주거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II. 연구의 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안동군 서미 2동 속칭 목현마을을 지역

*정회원, 상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적 범주로 하였다. 이 마을은 풍천읍에서 북으로 약 5 km지점에 위치한 깊은 산골 마을로 주위의 영향권 역에서 다소 벗어난 고립된 지역이다.

현재 이 마을에는 총 37戶가 거주하고 있으나¹⁾ 전통 목조가구식 구조의 법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은 모두 13호이다. 이 중 한 채는 마을의 정자 건물이며 순수 주거용 민가는 모두 12채 만 남아 있어 이들 모두를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²⁾. 그리고 개축이나 신축된 주택 중에서도 예전의 평면구조를 확인 할 수 있는 4곳의 자료³⁾는 참고로 하여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는 이 마을의 주택들이 대부분 여간집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유의하여 마을과 주택의 현상을 실측 조사하고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변형되거나 개조된 부분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해 마을길과 집의 배치 및 진입구 등에 대한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주택의 평면 및 구조

방식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형식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II. 마을의 연혁 및 현황

1. 서미 2동의 연혁

서미 2동은 대목재 또는 목현마을로 불리며 행정 구역상 안동군 풍산읍에 속한다. 원래 이 마을은 평해 황씨들의 동성마을로 그들이 이 곳에 최초 입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이다.

전해지는 바로는 풍천면 인금리에 살던 黃興世(1585-1646)의 처 삼척 김씨가 남편을 여읜 후 피폐해진 어려운 생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어린 자식인 黃河應(1638-1670)을 데리고 이 곳으로 찾아 들었다 한다. 따라서 현재 주민들은 황하응을 마을의 入鄕開基祖로 여기고 있다. 황씨들이 입향하기 전 이 곳엔 신씨들이 살았다는 口傳은 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다만 그들의 사당터로 알려진 자리와 묘가 몇 군데 남아 있을 뿐이다.

마을주민들의 이야기와 1913년 일제가 조사한 토지조사부를 통해서 고찰해 보면 당시에는 마을에 황씨 외에 구씨들이 일부 함께 살고 있었으며 1920-1930년대에 이르러서 구씨들이 마을을 떠나고 서야 현재와 같은 평해 황씨들만의 집성촌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2. 마을 현황

서미 2동은 예천군 보문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해발 643 m의 보문 학가산에서 발원한 현공산을 배경으로 삼고 그 남쪽 기슭의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한 마을이다. 현공산의 좌우 날개가 터를 동쪽과 서쪽으로 가까이 에워싸고 있으며 北高南低의 지형으로 인해 마을은 남북으로 긴 세장한 형상이 되면서 남쪽 방향으로 열린 형국이 되어 洞口가 자연스레 남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대개 마을의 위계는 입구에서 가장 먼 곳이 되기 마련인데 서미 2동은 북쪽지역이 입구에서 가장 멀고 지형적으로도 높아 위계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인지된다. 마을로 진입해 들어오는 길은 모두 두 갈래가 있다. 한 쪽은 마을의 오른쪽 산록 능선을 따라 들어오는 동쪽길이며 (현재 마을 사람은 주로 이 길을 주 진입도로로 쓰

표 1. 연구 대상 건축물

| 순번 | 주택명 | 건립년대 | 주소 |
|----|------|--------|---------------|
| 1 | 종택 | 1950년대 | 서미 2동 210번지 |
| 2 | 황중기 | 미상 | 서미 2동 215번지 |
| 3 | 황후규 | 약200년전 | 서미 2동 291-2번지 |
| 4 | 임차노미 | 미상 | 서미 2동 284번지 |
| 5 | 권영해 | 미상 | 서미 2동 282번지 |
| 6 | 황운기 | 미상 | 서미 2동 279번지 |
| 7 | 황정숙 | 미상 | 서미 2동 280번지 |
| 8 | 정순영 | 미상 | 서미 2동 272번지 |
| 9 | 황병창 | 미상 | 서미 2동 272-1번지 |
| 10 | 황오규 | 1930년대 | 서미 2동 266-5번지 |
| 11 | 황병시 | 1950년대 | 서미 2동 266-2번지 |
| 12 | 권호순 | 미상 | 서미 2동 262-2번지 |

1) 주민들의 면담과 당시 대지현황 등을 살펴보면 1970년대 목현 마을이 가장 번성하였던 시기에는 약 73호 정도가 마을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2) 마을 내 대상주택의 위치는 그림 3을 참조할 것.

3) 국립민속 박물관에서 1998년에 간행한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6-경북 내륙지역의 가옥과 생활 (안동군 편)'에는 현재 소실되어 버린 주택 3채(황석호, 황석태, 황수영씨가)와 개조된 주택 1채(황병시씨가)의 변형되기 전 모습이 평면도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본 논문의 내용 중 평면형식의 전체적인 특징과 개조양상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만 참조하였다.



그림 1. 서미 2동 배치도

고 있다). 또 한쪽은 좌측의 산자락을 끼고 휘감아도는 서쪽의 길인데 이 길이 예전의 주 진입로였다 한다. 두 길은 마을의 외곽을 감싸면서 경사지를 올라가다 가장 북쪽 종택의 앞에서 만나게 된다. 마을을 한바퀴 돌아 나가는 순환로인 셈이다.

지형이 급경사지로 이루어진 까닭에 집들은 이 순환로 안쪽으로 축대를 쌓아 평지를 만든 다음 건축되었다. 따라서 마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 7개 층으로 나뉘어지고 계단식으로 배열되었다.

3. 마을의 변천

최초 마을의 역사와 변천과정은 알 길이 없다.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예전 마을의 형태를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 토지조사부⁴⁾가 유일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당시 서미 2동에는 약 33호의 주택들이 자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913년 당시 지적도와 토지조사부를 바탕으로 당시의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 1970년대와 비교하여 발전 및 변천과정을 파악하였다.



그림 2. 토지조사부에 의한 1913년 당시 마을의 대지분포(左)와 1970년대 대지분포(右) '인동대 민속학 연구소(2002), 「까지 구멍집 많고 도둑 없는 목현마을」 46쪽과 48쪽에서 참조 인용'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1913년에 비해 1970년대에 이르러 마을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적도 상에 표시된 대지의 數로만 보아도 1913년의 33 필지에서 1970년대는 60필지로 늘어나 약 두 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974년에는 마을의 가구수가 73호에 이르렀으며 그 이듬해인 1975년을 고비로 주민들이 차츰 마을을 떠나는 추세가 이어졌다고 하니 서미 2동이 가장 크게 번성하였던 시기가 1970년대 초반 무렵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후대로 오면서 일어나는 마을의 확대양상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롭다. 첫째는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확장되면서 마을의 절대면적이 증가하는 적극적인 확대 방식이며⁵⁾ 둘째는 기존의 대지 면적이 둘로 나뉘면서 단순히筆地수만 늘어나는 방식이다⁶⁾.

대부분의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던 마을의 중간 영역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대지가 잘게 나뉘지는 소극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반면 마을의 아래 부분으로는 영역이 확장되면서 동시에 대지가 나뉘지는 적극적 확장과 소극적 확장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마을의 위쪽으로는 소수의 필지들이 대지로 전환되어 영역이 확장된 양상을 나타내고

4) 토지조사부는 일제가 식민지 체제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조사하여 1913년에 작성한 문서이다.

5) 이는 마을에 위치한 기존의 전답들이 대지로 바뀌면서 영역이 확장되는 방식이다.

6) 위의 방식에 비해 소극적인 확대로 볼 수 있다.



그림 3. 2002년 대지 분포도 공백으로 남겨진 부분이 나대지이다.

있다. 마을의 위쪽은 위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대부분 경사지로 이루어져 새로운 주거가 들어 설 자리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몇 몇 대지만이 용도 전환 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1975년 이후 마을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규모도 다시 줄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 조사한 대지의 현황을 보면 다수의 빈 대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의 중간과 윗쪽 영역은 주거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아래쪽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마을의 중간영역이 지속적인 사용추이를 보이는 반면 확장된 영역인 마을의 아래쪽 부분은 조건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마을 아래쪽 부분은 형국이 좁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비해 지형이 낮아서 주거용지로서는 적당치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된 것으로 보인다.

III. 주택의 배치 특성

조사된 각 주택들의 위치와 좌향, 출입구의 위치 등을 마을길 및 지형 등과 관련지어 분석함으로써 마을의 전체적인 질서 속에서 각 주택들이 지니는 배치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1. 배치 분석

조사된 민가들은 대개 2채 이상의 건물들로 구성된 別棟形 주택이 다수를 차지한다. 조사된 12채 중 사랑채를 따로 갖춘 종택과 아래채를 둔 6채의 주택 등 모두 7채가 別棟形 주택이다⁷⁾.

그런데 이들 아래채를 따로 가진 6군데의 사례⁸⁾들을 분석하여 보면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어 흥미롭다. 즉 아래채의 향이 본채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면서 나란하게 병렬 배치되는 경우는 황병시씨 덕뿐이며 나머지의 5곳의 경우는 모두 아래채가 본채와 직교되게 배치된 것이다. 그러나 황병시씨 집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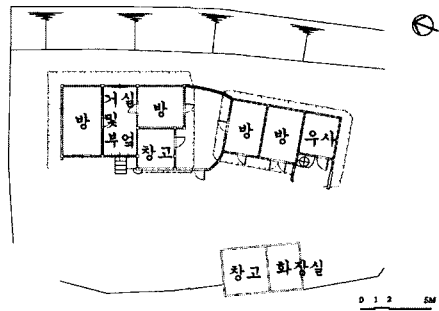


그림 4. 황병시씨 집 배치도

는 대지가 좁고 길기 때문에 땅의 형상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채를 따로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거의 본채와 직교되게 배치되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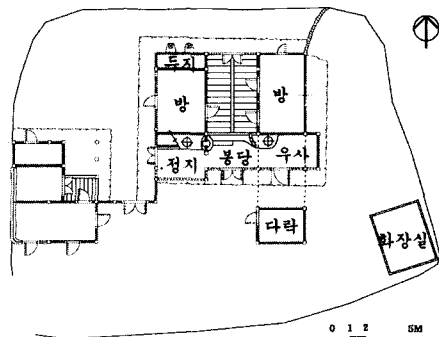


그림 5. 임차노미씨 집 배치도

7) 나머지 5곳의 주택도 과거 아래채를 갖추고 있었음을 마을 주민들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8) 아래채와 본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안채+사랑채로 구성된 종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들 5곳의 주택 중 특히 아래채가 본채 좌측으로 위치하여 ‘역 ㄱ자형’의 배치를 한 예가 4곳으로 오른 쪽으로 직교한 ‘ㄱ자형’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아래채의 채광조건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 남향인 본채의 좌로 직교하게 하여 아래채를 동향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아래채 위치와 본채의 室 구성 사이에도 관련성이 보여 주목된다. 6채의 주택 중 황오규씨 집을 제외한 5사례에서 본채의 공간 중 정지가 위치한 방향에 아래채가 자리한다는 것이다. 본채의 정지가 왼쪽으로 배열된 황정숙, 황후규, 임차노미씨 집은 아래채가 본채 좌측에 자리한 반면 오른쪽에 정지가 위치한 권호순, 황병시씨 집은 아래채 역시 본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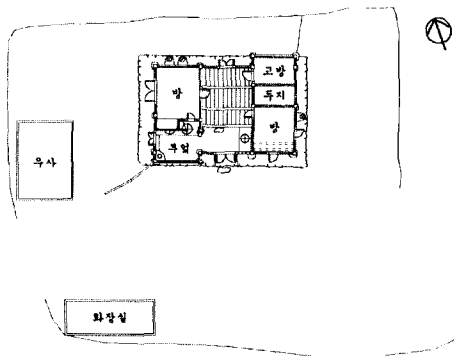


그림 6. 황운기씨 집 배치도

우측에 자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채 정지와 아래채를 연관지어 인접되게 배치한 것은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이공간(옆마당)을 형성시키고 이를 정지와 연결되는 작업마당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에서 기인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대상 주택의 본채 정지에는 측면 마당으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뒷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채와 아래채 사이에 다시 담을 치고 옆마당을 구획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마을길 쪽으로 열려 있어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앞마당과는 달리 정지의 옆마당은 폐쇄성이 매우 강한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정지 옆으로 담을 치고 마당을 앞과 뒤로 구분하려는 의도는 아래채를 갖추지 않은 황운기, 권영해씨 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미 2동 대부분의 민가들에서 개방적인 앞마당⁹⁾과는 달리 외부에 대해 폐쇄성이 강한 별

개의 마당을 구획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본채의 좌향과 진입방식 분석

조사 대상 민가의 본채와 아래채의 좌향 그리고 진입구의 방향 등을 조사하여 다음의 표를 작성하였다.

표 2에서 보면 본채의 경우 5곳¹⁰⁾을 제외한 7채의 좌향이 정남에서 20° 내외로 동쪽과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남향 선호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임차노미씨 집이 정남향이며 남동향과 남서향이 각각 3채로 확인되어 이들에게서 특별히 구분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5채의 민가들이 일반적인 예를 벗어나 있어 특별하다. 종택과 황병창 그리고 권호순씨 집은 서쪽으로 40°-50° 기울어져 있는 반면 황오규씨와 황병시씨 집은 거의 70° 이상 서향으로 돌아앉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5채에서 발견되는 특별성은 해당 주택들이 앉아 있는 지형 및 지세에 기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을전체 배치도를 참조해 보면 남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7채의 경우에는 마을의 중간영역인 평지에 자리한 반면 나머지 5채는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¹¹⁾. 종택은 마을의 가장 윗부분인 마을의 주산자락이 끝을 맺는 산자락을 타고 앉았으며 나머지 4채도 역시 마을을 좌측으로 휘돌아 감싸는 산자락의 끝 무렵에 앉았다. 좌향이 불리해 집에도 불구하고 동쪽편에서 내려오는 경사를 뒤로하고 집을 서향으로 돌려 앉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배치할 경우 대지의 조건이 좌향과 지형의 두 조건을 만족치 않을 경우 좌향 보다는 지형이 집 배치의 결정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거영역의 내·외를 이어주는 진입구¹²⁾의 위치는 마을길과 주택의 배치관계를 설명 해 줄뿐만

9) 서미 2동의 민가들은 대부분 여칸집(까치구멍집)이다. 여칸집은 집 자체가 외부에 대해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당은 길쪽으로 열려진 개방적인 공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종택, 황병창, 황오규, 황병시, 권호순씨 집

11) 마을길과 지형 그리고 각 주택의 위치는 그림 3을 참조할 것

12) 주택들은 대부분 대문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담장 한쪽을 개방시켜 출입구로 삼고 있다. 진입구라 함은 이 출입구를 말한다.

표 2. 채별 방위 및 진입구 방향(방위에서 + 와 - 는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기울어진 정를 나타내며 진입구 방향은 본채와 이루는 각도를 표시함)

| 순번 | 가옥명 | 안채 방위 | 아래채 방위 | 진입구 방향 | 진입 각도 |
|----|------|-------|--------|--------|-------|
| 1 | 종택 | -51° | -51° | ±0° | |
| 2 | 황중기 | +15° | | +15° | |
| 3 | 황부규 | -20° | +60° | +45° | |
| 4 | 임차노덕 | ±0° | +90° | -45° | |
| 5 | 권영태 | +10° | | ±0° | |
| 6 | 황윤기 | -20° | | -45° | |
| 7 | 황정숙 | -5° | +85° | -45° | |
| 8 | 계순영 | +5° | | ±0° | |
| 9 | 황병창 | -40° | | -30° | |
| 10 | 황오규 | -74° | +12° | -30° | |
| 11 | 황병서 | -70° | -100° | -30° | |
| 12 | 권호순 | -40° | -150° | -40° | |

아니라 주택의 좌향과 관련되어 출입자가 주택을 인지하는 시각적인 효과와도 연관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진입구와 주택 출입문을 잇는 동선이 주택의 축방향과 일치할수록 정면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경우 마당과 주택을 더욱 깊이감 있고 투시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표 2를 보면 마당으로 들어오는 진입구의 위치는 모두 본채 축으로부터 45°각도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 본채의 정면 방향으로 출입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다시 바꿔 말한다면 대지의 좌우측으로 진입구가 편중되어 주택의 측면쪽 마당으로 출입하는 예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서미2동 민가의 평면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상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 출입문이 본채의 정면 중앙부 한 곳으로 집중된 반면 측면과 배면은 강한 폐쇄성을 지니는 여칸집의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종택과 2채의 집은 본채의 축과 진입구의 방향이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특히 안채와 사랑채가 병렬형으로 배치된 종택의 경우는 사랑채를 정

면으로 마주 대하면서 접근하도록 진입구 위치를 설정한 의도적 고의성이 엿보인다. 종택은 다른 집들과는 달리 사랑채에 대문간을 두어 다른 집에 비해 보다 위엄과 격식을 갖춘 접근성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주택들이 본채와 진입구가 30°-45° 각을 이루었다. 이는 땅의 형상을 방향으로 가정했을 때 진입구의 위치가 대지의 좌우 모서리 쪽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마을길에서 본채 방향으로 가장 빠르면서 짧은 경로를 설정하여 출입구를 개설하면서 초래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서미 2동의 집들은 절대적으로 남향을 고집하지 않으며 지형을 우선시 하여 적당한 좌향을 따라 앉히며 그 다음으로는 대개 본채의 앞쪽 마당 건너편쪽으로 진입구를 개설하는데 그 위치는 본채와 마을길을 최단으로 이어주는 대지의 모서리 부근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주택의 평면적 특성

1. 평면의 형식과 개조 양상

연구 대상 주택과 예전의 평면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3채의 주택¹³⁾ 등 총 15채의 평면 형식을 살펴 보면 서미 2동의 주택들이 대부분 안동 북부내륙지방과 강원도 남부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칸집 평면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개 전형적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앞 열에는 정지와 봉당 그리고 외양간이 각 1칸 크기로 일렬 배치되고 그 뒷 열엔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이 나란히 배열된 곁집의 구성을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일부가 생략되거나 확대되기도 한 변형된 여칸집의 사례들이 보이기도 하며 정면이 4칸으로 구성된 一字形 채집도 다소¹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들 일자형 주택들에서는 일반적인 남부 지방의 민가에서는 볼 수 없는 평면구성상의 특징들이 발견된다.

황중기씨 집의 경우에는 정면 4칸 중 1칸을 제외

13) 각주 3참조

14) 종택, 황중기, 권호순, 황수영씨 등 4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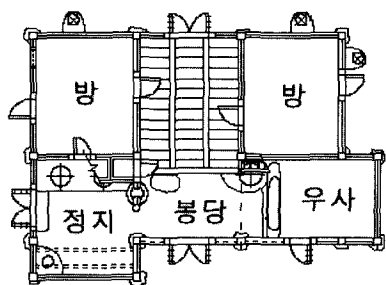


그림 7. 전형적인 여칸집 평면(황후규씨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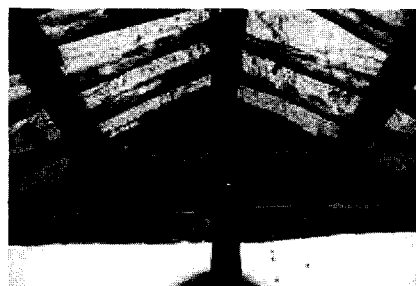


사진 1. 종택 온돌방 상부 구조 (마루에서 지붕 측면의 박공이 직접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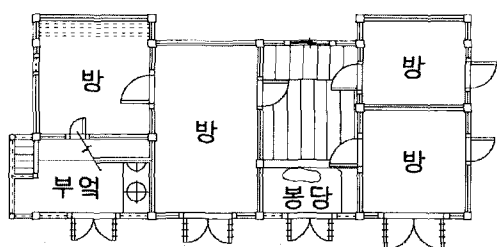


그림 8. 황중기씨 집 평면

한 나머지 3칸이 겹집 혹은 반겹집화 되어 있으며 마루 앞으로는 출입문이 설치된 봉당을 두는 등 일반적인 채집에서는 보기 힘든 평면구성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전면에 비해 배면 쪽은 매우 폐쇄적으로 한 것과 마루 상부의 가구구조¹⁵⁾ 등으로 보아 여칸집의 법식에 따라 건축된 집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따라서 황중기씨 집은 일반적인 여칸집 평면에서 외양간이 떨어져 나가고 정지와 마루 사이에 통칸의 온돌방이 끼어 들면서 변형된 평면형식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종택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형된 여칸집 부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중기씨 집과는 달리 방 앞쪽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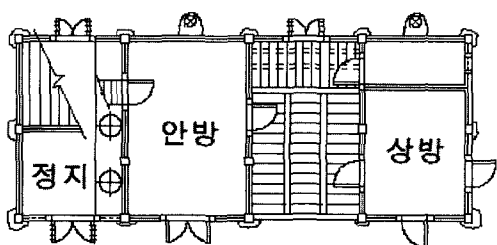


그림 9. 종택 평면

지가 옆으로 돌아가 앉는 동시에 외양간이 따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초래된 변형으로 보는데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황중기씨 집에 비해 더욱 주택의 환경이 개선된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출입문이 설치된 봉당이 없어짐으로 인해 마루가 직접 외기에 접하게 되었고 정지 뒷방이 없어서 정지의 환기 조건이 더욱 좋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미 2동의 민가는 채집을 비롯하여 모두 일명 까치구멍집으로 불리는 여칸집의 평면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특히 위 두 주택의 변형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외양간의 탈락은 이 마을 주택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중 하나이다. 평면형식을 확인 할 수 있었던 15채의 주택들 중 이미 8채의 주택에서 우사가 생략되어 가족공간의 분리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통되는 또 하나의 평면적 특징으로 본채 내부에 두지가 다수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대상 주택 중 과반수가 넘는 10채의 주택이 본채 온돌방 뒤 쪽으로 두지를 두고 있다. 수장기능을 가진 두지는 대개 아래채나 고방채에 위치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마을에서 이러한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주택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마을의 주택들이 가지는 평면적 특수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평면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 즉 우사의 생략과 두지의 附加가 서로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우사와 두지를 동시에 갖춘 집은 3채에 불과한 반면 11채의 주택은

15) 그림 8 참조. 단면상으로 보면 양측 온돌방 상부의 고미 반자와 지붕사이를 띄워 마루에서 직접 측면 박공을 보이게 한 구조는 여칸집의 특징이다.

16)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새마을 사업 등으로 대대적인 집의 개조가 있기 전 주택의 70-80% 정도가 여칸집의 평면 구성을 하고 있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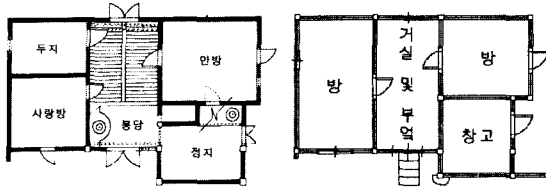


그림 10. 황병시 씨 집의 개조전 (左: 1998년)과 개조후(右: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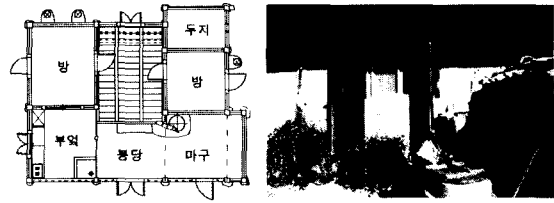


그림 11. 권영해씨 집 평면도와 좌측면사진 (측면 정지문 안으로 새로 개조된 입식부엌의 알루미늄 새시 창문이 보인다).

모두 이들 두 공간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갖추고 있으며¹⁷⁾ 비율로 볼 때 두지만을 갖춘 집이 배가 된다. 이들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외양간은 본체에서 분리되어 가는 추세가 강한 반면 두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내부공간을 차지하는 평면적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는 것이다. 이는 생활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수장공간을 가까이 두어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합리적인 사고가 반영되면서 일어나는 변형의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최초 전형적인 여간집 평면으로 건축된 주택들 중에도 현대식 생활방식을 수용하면서 평면의 개조가 초래된 몇몇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된¹⁸⁾ 황병시씨 집은 3년의 짧은 기간을 거처오는 동안 내부의 공간이 현대식으로 바뀌어진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주택은 공간의 통합과 轉用의 과정을 통해 바뀌어진 주생활을 수용하려 하였다. 봉당과 마루 그리고 사랑방과 두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각각 거실기능을 겸하는 입식부엌과 하나의 넓은 방으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정지는 집밖에서 사용하는 창고로 전용한 경우이다. 집의 구조는 크게 바꾸지 않은 채 공간상의 배열과 기능만을 바꾼 예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 권영해씨 집을 들 수 있는데 이 집은 앞서 분석한 황병시씨 집보다 소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내부 공간의 배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지의 설비만을 개조한 사례이다. 즉 봉당과의 사이에 간벽을 치고 바닥을 높인 다음 현대식 주방설비를 도입하여 정지를 입식으로 꾸몄다. 가장 최소의 노력을 들여 가장 필요한 부분만을 개제한 기지가 돋보이는 주택이다.

그런데 특히 위 두 개조 사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모두 집의 구조와 기본 골격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간상의 일부 변형에 그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원인으로 집주인의 경제적 빈곤과 함께 여간집의 평면적 특수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여간집의 평면 구성은 다른 민가들에 비해 현대주택의 평면과 매우 유사하여¹⁹⁾ 현대식 주생활을 수용할 경우 일부분만을 개조해도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 공간구성의 특징

대상주택의 평면상에 보이는 각 공간별 구성적 특성과 그들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별 절대면적과 상대 비율을 함께 정리하였다.

표 3에서 보면 대상주택들의 건축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40㎡-5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임차노미씨 집이 58.5㎡로 가장 넓고 황병씨 집이 31.6㎡로 가장 작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집들은 모두 이 범위의 안팎에 포함된다. 현대식 아파트에 비교해 보면 서민 아파트에 해당되는 15坪-18坪 정도의 크기이다. 특히 우사나 봉당 혹은 두지 등이 생략되거나 附加되면서 나타나는 변형된 여간집과 전형적인 여간집과의 사이에 특별한 크기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공간구성의 변화가 곧 바로 절대면적의 증감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내부공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별 면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주택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마루가 채택된 집이 6채인 반면 안방이 가장 넓은 집이 그 다음 순위로 3채가 파악되었다. 따라서 마루공간이

17) 우사만을 갖춘 집이 4채, 두지만을 갖춘 집이 7채로 파악되었다.

18) 각주 3참조

19) 평면의 구성상 특히 봉당과 이에 연결한 마루는 현대식 주택의 현관과 거실의 모습을 닮아 있고 실지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표 3. 내부 공간별 면적과 비율

| 주택명 | 면적비 | | 안방 | | 마루 | | 사랑방 | | 정지 | | 봉당 | | 우사 | | 두지 | | 방1 | | 방2 | | 합계 | |
|------|----------------|------|----------------|------|----------------|------|----------------|------|----------------|------|----------------|------|----------------|------|----------------|------|----------------|------|----------------|------|----------------|-----|
| | m ² | % | m ² | % | m ² | % | m ² | % | m ² | % | m ² | % | m ² | % | m ² | % | m ² | % | m ² | % | m ² | % |
| 종택 | 11.1 | 27.3 | 10.3 | 25.3 | 7 | 17.2 | 10 | 24.6 | | | | | | | 2.3 | 5.7 | | | | | 40.7 | 100 |
| 황중기 | 7.9 | 17 | 7.1 | 15.3 | 6.6 | 14.2 | 6.1 | 13.1 | 2.7 | 5.8 | | | | | | | 5.4 | 11.6 | 10.6 | 22.8 | 46.4 | 100 |
| 황후규 | 7 | 17.6 | 8.2 | 20.7 | 6.8 | 17.1 | 7 | 17.6 | 4.2 | 10.6 | 6.5 | 16.4 | | | | | | | | | 39.7 | 100 |
| 임차노미 | 10.3 | 17.6 | 13.8 | 23.6 | 12 | 20.5 | 7.3 | 12.5 | 6 | 10.3 | 6.7 | 11.5 | 2.4 | 4.1 | | | | | | | 58.5 | 100 |
| 권영해 | 8 | 16.7 | 10 | 20.9 | 5.5 | 11.5 | 7 | 14.6 | 6 | 12.6 | 7.7 | 16.1 | 3.6 | 7.5 | | | | | | | 47.8 | 100 |
| 황운기 | 7.6 | 18.7 | 10.1 | 24.9 | 6.3 | 15.5 | 6 | 14.8 | 4.4 | 10.8 | | | 2.5 | 6.2 | 3.7 | 9.1 | | | | | 40.6 | 100 |
| 황정숙 | 9 | 18 | 10.5 | 21 | 8.8 | 17.6 | 8.1 | 16.2 | 5.6 | 11.2 | 7.9 | 15.8 | | | | | | | | | 49.9 | 100 |
| 정순영 | 7.2 | 18.6 | 7.6 | 19.6 | 5.9 | 15.2 | 8 | 20.7 | 4.7 | 12.1 | 5.3 | 13.7 | | | | | | | | | 38.7 | 100 |
| 황병창 | 5.8 | 18.4 | 6.6 | 20.9 | 6.4 | 20.3 | 5.8 | 18.4 | 3.4 | 10.8 | | | 3.6 | 11.4 | | | | | | | 31.6 | 100 |
| 황오규 | 10.5 | 25.2 | 9.5 | 22.8 | 8.3 | 19.9 | 7.6 | 18.2 | 2.5 | 6 | | | 3.3 | 7.9 | | | | | | | 41.7 | 100 |
| 황병시 | 9.2 | 22.1 | 6.9 | 16.5 | 7.7 | 18.5 | 7.6 | 18.2 | 4.6 | 11 | | | 5.3 | 13.2 | | | | | | | 41.7 | 100 |
| 평균 | 8.5 | 19.7 | 9.1 | 21 | 7.4 | 17.1 | 7.3 | 17.2 | 4.4 | 10.1 | 6.8 | 14.7 | 3.3 | 8 | 4.6 | 10.4 | 10.6 | 22.8 | | | 43.4 | 100 |

안방보다 다소 비중이 높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크기에 비례하여 상대적인 비율을 보았을 때 마루가 평균 21%의 점유 비율을 보이는 반면 안방이 19.7%여서 실지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주택 내에서 마루와 안방이 대등하게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주택 내에서 대표적인 공동생활 장소인 이 두 공간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 것은 가족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주거생활을 고려하여 건축된 여간집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사랑방은 안방에 비해 규모가 작다. 사랑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곳은 임차노미씨 집과 황병창씨 집 두 사례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대개 안방보다 1m²-2m² 정도 사랑방이 더 작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공간확대의 필요성으로 인해 사랑방을 갖춘 아래채를 별도로 지으면서 본채에 속한 사랑방의 규모가 점차 작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간집의 평면 배열상 마주 대하는 곳에 위치한 정지와 외양간의 면적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대체적으로 외양간의 면적이 약간 작은 경향이 보이나 둘 다 6m²-8m² 정도의 범위에 든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공간이 전체면적 중 차지하는 점유 비율을 따져 볼 때 정지가 24.6%-12.5%, 외양간이 11.5%-16.4%로 각 주택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정지와 외양간은 집의 전체면적에 상관없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필요 최소면적을 기준

으로 크기가 정해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는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는 공간으로 봉당을 들 수 있다. 봉당은 절대면적의 경우 2.5m²-6m²의 범위에 있어 편차가 매우 심하나 전체면적에 대한 점유비율을 볼 때 황중기씨 집과 황오규씨 집의 경우만 제외하고 거의 10%-12%의 범위대로 집중되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황중기씨 집의 경우가 전술한 바 대로 여간집에서 변형된 채집의 경우임을 고려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여간집에서는 전면적의 10% 정도를 봉당의 크기로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봉당은 집의 규모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매우 탄력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갖춘 공간이 된다.

V. 결 론

이상에서 서미 2동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의 구조 및 주택의 배치·평면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보이는 마을의 확장 과정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된다. 즉 마을의 가운데 지역은 필지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지는 대지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위 아래쪽으로는 田畓이 대지로 전환되면서 마을의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서미 2동의 민가는 대개 別棟形 주거로서 2채 이상의 건물이 ‘ㄱ자형’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많

다. 특히 본체의 정지가 위치한 쪽에 아래채를 배치한 다음 이 사이에 담장을 쌓고 앞마당과는 구분되는 폐쇄적인 작업 마당을 두는 예가 많다.

셋째, 마을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평지 주택들은 거의 좌향에 따른 배치가 두드러지나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경사지에서는 지형을 우선하여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마당 진입구는 본체의 정면방향을 지향하면서 가장 짧고 빠른 동선을 택해 대지의 모서리 방향 쪽으로 개설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섯째, 마을의 주택은 대부분 여칸집 평면구성을 하였으나 생활환경의 개선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외양간은 생략되고 두지 등 수장공간이 본체에 추가되는 변형된 여칸집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여섯째, 대상주택들은 대개 40 m²-50 m² 규모이며 이들 면적의 크기는 내부 공간들의 구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공간의 면적을 볼 때 마루와 안방이 가장 넓고 사랑방은 이에 비해 약간 작은 규모를

보인다. 또한 외양간과 정지는 주택의 전체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절대면적을 필요로 하며 이외는 반대로 봉당은 주택별로 약 10%의 일정한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어 주택의 전체 크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주)청구.
2. 강영환(1999),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3. 국립민속박물관(1998), 경북 내륙지방의 가옥과 생활,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6.
4.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2002), 까치구명집 많고 도둑 없는 목현마을, 한국학술정보(주).
5. 정명섭(1997. 10),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의 마을과 주거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주거학회지 제8권 제3호.
6. 이호열(1997. 12), 경북지방 근대 한옥의 유형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13.
7. 한지만, 이상해(2001.9),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9호.
8. 박동엽(2002. 4), 포천군 근대 농가의 건축적 변화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3권 제2호.